

## 유통업계 “독신 손님을 잡아라”



광주지역 '1인 가구'가 5년 전에 비해 5%나 늘어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싱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 원쪽은 1인 가구를 위해 과일을 조각한 소포장 상품이며 오른쪽 역시 독신기구와 젊은층을 위한 조각과일 모음세트.



(이미트 상무점 제공)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 임모(31)씨. 일주일이면 2 차례 정도 떠나는 집 근처 마트를 들른다. 임씨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 품목은 소포장의 채소류와 과일. 1인용 간편정식이다. 수년 전만 해도 임씨에게 대형마트 장보기는 힘들었던 일이었다.

마트는 주로 대용량 상품을 취급했고, 혼자 사는 임씨는 구입 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찾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보기는 임씨의 즐거움이 됐다. 이제는 대부분의 식료품이 임씨처럼 '1인 가구'를 위해 나오기 때문이다.

싱글족이 신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유통업계도 '싱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독신기구와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대표적 가구구성이 4인에서 1·2인으로 바뀐 덕분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0 인

### 광주 24% 12만여명이 1인가구 신 소비층 겨냥한 '싱글 마케팅'

#### 과일 등 '소포장 미니상품' 인기

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기준 광주지역 51만6000가구 중 1인 가구는 23.7%(12만229가구)를 차지했다. 지난 2005년 19%에서 4.7%나 증가한 수치로 광주지역 4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션이다.

이처럼 빠르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통업계도 독신을 위한 '소포장·미니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작 밥 두세 그릇이 나오는 밥솥부터 티셔츠 몇 장만 세탁이 가능한

미니세탁기, 가습기, 청소기, 정수기까지 1인용이 나왔다. 대형마트는 소용량 포장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4~6조각으로 포장하던 갈치와 고등어, 삼치 등을 2 조각 단위로 팔고, 갓잎과 삼추, 갑자 등의 야채도 기존 용량의 절반만 담아 990원의 가격에 내놓았다. 끌리도 최근엔 기존 500ml 대신 300ml 상품이 출시됐고, 맥주와 와인, 소주 등 주류 역시 혼자 마실 수 있는 분량의 미니 상품이 나왔다.

판매율도 급증하고 있다. 4일 광

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수박 등 혼자 먹기 부담스러운 과일을 살리면서 파는 '조각과일'은 지난달 전년보다 36%나 증가했다. 혼자 먹기 좋은 양을 담아 990원에 판매하는 갓잎과 고추, 마늘도 지난해에 비해 65%가 늘었다.

광주지역 마트 5개 점포의 소포장 상품 7월 매출도 지난해에 비하면 품목별로 최대 121.1%가 증가했다. 컷파인애플(44.7%), 간편가정식(23.8%), 백세주 300ml(39.5%), 참이슬 200ml(42.6%)의 신장률이 높았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젊은 부부와 독신층에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포장 상품 구매율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라며 "젊은층과 1인 가구는 외식도 많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한끼' 분량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삼성전자 냉장고·청소기 생산 중단

#### 협력업체 자금난

협력업체의 자금난으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청소기 생산이 이를테면 중단됐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광주사업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 중 한 곳이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광주사업장의 냉장고·청소기 생산라인도 멈춰 지난 3일부터 이틀째 생산이 중단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리 확보해둔 재고가 있어 제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협력업체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의 선반과 과일보관통, 청소기 외관과 내부 부품, 시스템 어워크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업체로, 광주 사업장에 연간 240억원 가량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자금난이 가중되면 서 2차 협력업체에게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해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연쇄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 이 업체는 현재 삼성전자 측에 자

금 지원을 긴급 요청하고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현재 자금난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당장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며 "부도가 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협력업체 자금 지원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어제부터 냉장고·청소기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됐다"며 "하지만 재고 물량이 있어 제품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 송영종 인력공단이사장 来光



송영종(5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5일 광주를 방문한다.

송 이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 본부 지게차시험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광주고용센터와 인재육성아카데미,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를 방문해 인력 양성에 대해 대화한다. 송 이사장은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를 나왔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 이동통신 가입자 7년 만에 감소세

#### KT, 2G 가입자 줄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KT가 2G 가입자 줄이기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175만197명으로 5월 5175만4056명보다 389명 줄었다.

이는 2004년 8월 3614만6555명을 시작으로 7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월간 가입자 수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KT의 가입자 수가 5월 1640만1352명에서 6월 1629만

6196명으로 10만5156명 줄었다. 반면 SK텔레콤은 5월 2620만3566명에서 6월 2626만8972명으로, LG유플러스는 5월 914만9138명에서 6월 918만5029명으로 늘었다.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KT의 가입자 감소한 점이다.

따라서 이번 가입자 감소는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KT의 2G 가입자 수 줄이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KT는 6월에 광 감시에 사용하는

업무용 2G 휴대전화를 일괄 해지하고, 요금 미납에 의한 이용 정지자를 모두 정리했다. 이번에 일괄 해지된 KT의 업무용 2G 휴대전화나 이용정지자들은 3G로 전환하지 않고, 번호이동을 통해 타사로 옮겨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체 가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T의 2G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4일 약 37만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2G 가입자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었던"며 "전체 가입자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앞으로도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T 가입자 수 감소는 올해 들어 5월까지 꿈꿔도 안 했던 이통 3사 시장 점유율도 움직였다.

이통 3사의 1~5월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6%, KT 31.7%, LG유플러스 17.7%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6월에는 SK텔레콤 50.8%, KT 31.5%, LG유플러스 17.7%로 변동했다.

/연합뉴스

#### 한미FTA 빠른 비준 요청

#### 광주·전남지역 무역상사협회

광주·전남지역 무역상사협회 회장단(회장 김봉길 삼각FMC 대표)은 4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면담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요청했다.

김봉길 회장은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광주·전남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가전, 반도체, 기계류 제품의 관세 철폐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상사협회 회장단은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위해 지역구 출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트로니ックス가 올리Pic과 월드컵을 유통하는 남부 러시아 지역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하며 러시아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 가운데 43개 서비스 센터 구축 및 유통망과 함께 공격적 마케팅 활동 전개를 펼치고 있다. 러시아 바이어가 대우일렉트로니克斯에서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양문형 냉장고 내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대우일렉트로니克斯 러시아 신제품 발표회

#### 드럼업II 세탁기·말하는 복합 오븐 등 선보여

대우일렉트로니克斯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동계올리Pic과 월드컵을 유통하는 남부 주요도시인 로스토프온돈, 크拉斯노다르, 볼고그라드 등을 전략기점으로 삼아 유통망을 확대,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지 바이어와 언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대우일렉트로니克斯는 드럼업II 세탁기와 말하는 복합 오븐, 3문형 냉장고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박정육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18.47 (-47.99)**

#### 코스닥지수

**522.07 (-9.84)**

#### 금리 (국고채 3년)

**3.77% (-0.05)**

#### 원·달러 환율

**1061.70원 (+1.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대인동삼일부동산

####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이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암아: 470,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단지내 도로 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대 지 : 250평(30×8코너)  
기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급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높 이 : 8. 9. 10.9m  
▶ 호이스트 : 유, 유, 유  
▶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토지 매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 공동 중개 환영

####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관광호텔] 대186㎡, 건1642㎡ 김경기 90억 최저가 50억	신인동[4층근린시설] 대385m², 건1191m² 김경기 8억8천 최저가 3억9천	종합동 [원룸] 대201m², 2465m² 김경기 3억7천 최저가 2억6천	일곡동